

메이지 초기 일본 지식인의 기독교 이해

명육사(明六社)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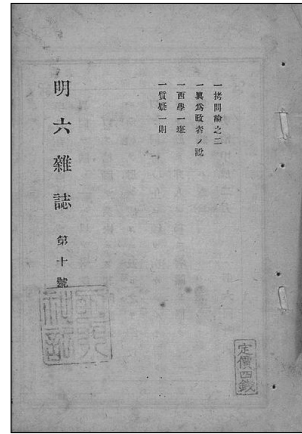
김용덕

메이지정부는 성립 후 얼마 안 되어 천황권의 확립을 목표로 한 신도(神道)국교화 정책을 내세우려 했다. ‘기독교 사교(邪敎)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라는 태정관(太政官)의 포고(1868. 3. 15)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미 이전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외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고 난 뒤로 기독교도에 대한 공식적인 탄압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독교에 대해 금지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동안 일본에 들어온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는 많이 알려졌고 또 일본인 중에도 개종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태정관 포고 이후 1869년 말 우라카미(浦上)의 기독교도 약 30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하나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

김용덕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원에서 일본근대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0년부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일본사를 2008년까지 가르치고 퇴임한 뒤 현재는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로 있다. 그 동안 일본사학회장과 역사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명치유신의 토지세계개혁』,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편저로는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II·III』 등이 있다. 주된 연구 관심은 ‘명치기의 지식인 사회’와 ‘동북아의 역사 갈등’이다.

히려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조약 개정을 원하는 메이지정부에 대한 서양 국가들의 항의를 불러왔을 뿐이었다. 1872년 5월 태정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각 부현(府縣) 장관(長官) 앞으로 금교(禁敎) 완화를 지시하였고,¹ 다음 해(1873. 2. 24)에는 이른바 기독교 금지를 고지했던 ‘고찰’(高札, 법령 등을 공지하기 위한 게시판)의 철거를 명하였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사실상의 허가라고 하겠으나, 메이지정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국민교화를 위한, 그리고 서



〈그림 1〉『명육잡지』

양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때에 서양을 직접 체험했거나 책을 통해 서양문화를 이해하고 있던 지식인들 중, 기독교를 사교가 아닌 서양 힘의 원천으로 본 사람들이 모여 종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한 곳이 명육사(明六社)였다.² 그들의 주장은 『명육잡지』(明六雜誌)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를 매개로 명육사 멤버들은 당대 최고의 개명과 지식인답게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히고 논쟁을 벌였다.³

기독교를 둘러싼 종교논쟁도 그 중의 하나로서, 당시 일본이 처한 상황 아래에서 서양의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려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종교논쟁의 초점은 기독교를 공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 이미 이때에는 천황에게 기독교를 권하는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의태서인상서」(擬泰西人上書)가 영어로 번역되어 1872년 5월 18일자 The Japan Weekly Mail에 “Memorial Addressed to Tenno”로 실릴 정도였다.

2 명육사(明六社)에 관하여는 김용덕, 「명치초기의 보수와 진보: 明六社」, 『일본근대사를 보는 눈』, 지식산업사, 1992, 82~92쪽.

3 내용을 보면, 문자의 개혁/새로운 종교/국학의 진흥/민선의원의 설립/학자의 직분/외국인의 내지 여행/경제발전/부부동권/중국관계/정체론/생활의 과학화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논의와 논쟁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明六雜誌』는 모두 43호로 『明治文化全集』 第18卷(日本評論社, 1928)에 실려 있다. 교주본(校注本)으로는 山室信一·中野目徹 校注, 『明六雜誌』 上·中·下(岩波書店, 1999~2009)가 있다. 본고에서는 1928년 판을 이용했다.

부터 ‘지식’의 심화 확대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 기독교를 ‘종교’로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전통적 가치를 찾으려는 태도, 그리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종교의 도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 글에서는 명육사 지식인들의 다양한 기독교 이해 방식을 살펴보고, 그 차이의 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아울러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것이 근대적 국가 수립이라는 현실적 목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검토할 생각이다. 서양 열강의 외압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양을 따라가면서도, 서양을 이겨내야 한다는 당시 일본의 상황 조건이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서양종교를 이해하게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지식’으로서의 인식

종교, 특히 기독교에 관하여 가장 많은 글을 실은 사람은 니시 아마네(西周)였다. 이미 도쿠가와(徳川) 말기에 네덜란드 유학을 경험했던 그는 종교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교문론」(敎門論)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명육잡지』에 게재했다. 종교의 본질에 관한 그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⁴

교문(종교)은 믿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은 지식이 미치는 바에 뿌리를 두고 있지는 않다. 인간이 그것을 안다면 리(理,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원리)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능히 알 수 없는 것(종교)은 오직 아는 바를 유추하여 알 수 없는 것을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리라는 것 역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明六雜誌』 4號, 71쪽.

이는 교문론 전체의 기본개념을 규정한 것으로, 믿음과 지식은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와 정치의 관계도 밝히고 있다.



〈그림 2〉 니시 아마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인 까닭에 용자(勇者)라도 힘으로 타인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지자(知者)라도 타인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교에 관하여도 역시 사람들이 믿는 바를 [정부의] 마음대로 저것은 믿으면 안 되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정부와 종교의 영역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정치의 권리는 종교의 도리와 그 기본을 달리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종교의 도는 현세뿐 아니라 과거와 내세까지 관장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 기준으로서의 정령(政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교분리의 종교관은 당시 신도 국교화를 추진하려는 정부 일각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었다.

니시 아마네의 정교분리론(政教分離論)은 한편으로 민도(民度)에 대한 신뢰를 논리적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역사의 초창기에는 영웅이 정치와 종교의 권위를 한 손에 장악하고 다스렸지만 후세에 인간의 지능이 성숙하게 되자 감히 그 허망함을 믿지 않게 되어, [정교일치(政教一致)가] 폐해지는 것이 역사의 추세다.”라고 보고 있다. 정교일치의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이 우매했기 때문이지만 인지가 발달하여 종교의 본질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정교일치의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결국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니시는 정부가 제왕(帝王)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여 신(神)이나 리(理)나 ‘조물(造物)의 주재(主宰)’와 같이 하려고 해

도, 그 제왕이 인간인 한 아무리 존엄하다 해도 그를 믿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천황의 신격화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종교 지도자들을 선임하고 위계를 정하는 등의 일을 정부가 한다면 정부가 종교를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종교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교분리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지식과 신앙을 분리하여 본 그는 신앙을 단순히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바의 것을 믿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불가해한 것으로 보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앙은 “지식을 갖고 ‘주재’의 존재를 미루어 믿는 바에 이르는 것”으로, ‘지식’의 연찬과 불가지(不可知)한 초월적 ‘주재’에 대한 신앙의 계기는 ‘상즉불리’(相卽不離)한 것으로 그는 보았다. 즉 인지(人知)의 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앙을 그는 근대적인 신앙의 단계로 보았다. “지식이 큰 사람은 그 믿는 바 또한 높다.”라고 하여 신앙은 지식에 따라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정치는 종교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습속의례(習俗儀禮) 등에 반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정교분리와 신앙자유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현철’(賢哲)이 택한 ‘순청’(純淸)한 신앙 대상을 정부가 권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신앙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결국 니시 아마네는 종교와 지식 간의 분명한 분리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교(新敎)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국체(國體)와 같은 ‘습속의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⁶ 그렇기 때문에 제도로서의 천황제는 일본에 필요한 존재로서, 신앙과는 별개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5 『明六雜誌』 8號, 96쪽.

6 中野目徹 解説, 『明六雜誌』 下, 岩波書店, 2009, 508쪽.

‘종교’적 접근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는 니시 아마네와 마찬가지로 도쿠가와 말기 영국 유학을 하는 동안 기독교를 알고 믿게 되었던 사람이다. 또한 유교의 도덕성을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신앙과 융합시킬 수 있는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인 유학자이기도 하였다.⁷ 그러나 일찍이 천황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건의했던(주 1 참조) 나카무라는 기독교야말로 앞서 가는 서양의 힘과 발전의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다 깊이 있는 유교라고 믿었다.



〈그림 3〉 나카무라 마사나오

상제(上帝)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게 양지(良志)의 마음이 있는 것은 마치 상제의 손으로 그 명령이 [사람들의] 심중(心中)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과 같으며, 총명한 학사(學士)가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시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세우는 것, 이것이 곧 상제의 명령이다.⁸

이는 마틴 루터의 협력자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의 말을 나카무라 나름으로 번역하여 실은 것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상제’로 등치(等置)시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양의 학문을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분류한 나카무라는 “격물학(물리학)이 점점 정치(精緻)하게 발달함에 따라 ‘지상조화주’(至上造化主)의 효용이 점점 나타나 진신(眞神) 즉, 조화주가 천지만물을 관할하는 것이

7 많은 명육사원들이 중국을 멸시할 때, 그는 중국을, 특히 중국문화를 모욕하면 안 된다는 「支那不可侮論」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明六雜誌』 35號.

8 『明六雜誌』 11號, 111쪽.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된다. 하늘의 상(賞)을 바라고 하늘의 벌(罰)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아 인심이 매일 선(善)을 향하고 악(惡)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⁹라고 보았다. 유가사상을 먼저 익힌 그가 기독교를 접하게 되자, 그는 유가적 실천윤리를 기독교 신앙의 바탕으로 하는 통일적인 세계관을 나름대로 갖추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와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를 구분하여 덕성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공평의 리(利)와 공동의 익(益)인 율법을 지키는 외에 남의 압제와 구속을 받지 않는 인민의 권리를 civil liberty라고 하여 서양에서는 이것을 개화치평(開化治平)의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Religious liberty는 인민이 자기의 마음에 옳다고 믿는 종교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윗사람이 억지로 그 뜻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이 자유(liberty)를 얻어 쓸데없는 속박을 받지 않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좋아하는 것을 좇아 얻게 되고, 각각 뜻을 펼 수 있게 된다. 모두 선한 공동의 이익을 꾀하며 문무가 서로 돕는 습속이 이루어질 것이다.¹⁰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속에서, 사람들은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천량시비(天良是非)의 마음’을 계발·확충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덕성론(德性論)을 바탕으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된다고 나카무라는 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지는 그의 「인민의 성질을 개조하려는 주장」(人民ノ性質ヲ改造スル説)에서도 볼 수 있다.¹¹ 메이지유신을 ‘일신’(一新)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그는 ‘이는 정체(政體)의 일신일 뿐 인민의 일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신이라고 하였

9 『明六雜誌』 16號, 134쪽.

10 『明六雜誌』 12號, 117쪽.

11 『明六雜誌』 30號, 201~202쪽.

다. 인민이 어리석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정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피상적일 뿐이라고 보았다. “인민의 성질을 개조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바, 하나는 ‘예술’(藝術, 학문과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교법’(教法, 종교와 도덕)이다. 이 두 가지는 차(車)의 양륜(兩輪)이며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서로 보완하여 민생을 복지에 이끌 수 있다”고 하여 ‘교법’을 도외시하거나 혐오하는 경향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종교와 도덕을 통한 일본의 진정한 변혁, 그것은 유교적 기독교를 이루어 보려는 나카무라의 신념이었다.

같은 영국 유학생으로 명육사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견해도 나카무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 다만 모리는 유가적 도덕관을 연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갔을 때 신령과 기독교에 입문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었다. 물론 종교 행위의 한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직무는 오직 인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종교의 일은 인민 각자가 스스로 좋아하는 바를 따라 행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정부는 마땅히 법을 세워 이를 제재해야 한다.¹²

이는 만국공법에 관한 서양학자의 글을 발췌·번역한 글에 서문으로 쓴 부분이지만, 정교분리에 따라 인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여 기독교의 전파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 기본이다. 그는 사실 이 글을 쓰기 2년 전(1872년) 영문으로 「일본에서의 종교적 자유」(Religious Freedom in Japan)를 공간하여, 미국을 방문한 이와쿠라(岩倉)사절단이 비난 받게 될 일본의 기독교도

12 森有禮, 「宗教」, 『明六雜誌』 6號, 83쪽.

박해정책을 무마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일본에서 일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며, 종교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국교화하자는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와 같은 주장에는 종교적 차원을 강조하여 반대하였다.

공리적 입장

당시 일본의 시대적 과제였던 문명개화를 위하여 종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명육잡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사실 쓰다 마미치였다. 「개화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논함」(開化ヲ進ル方法ヲ論ス)¹³이라는 글에서 그는 종교의 목적이 “불개화(不開化)된 민(民)을 인도하여 선도(善導)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여 기독교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지금 세계의 인민 일반의 개화를 돕는 데에는 기독교만한 것이 없다.… 현재 여러 관성(官省)에서 많은 서양인을 고용하여 그 학문과 기술을 전해 받는 것과 같이, 가장 뛰어난 법교사(法教師, 선교사)를 고용하여 공개적으로 우리 인민을 교도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를 고용하여 인민을 기독교도로 개종시키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파격적 제안이었다. 이는 물론 서양 열강이 부강한 근대국가가 된 배경에는 기독교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¹⁴

13 『明六雜誌』 3號, 65~66쪽.

14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도 유럽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강대한 배경에는 기독교의 교법과 로마시대의 국제질서에 있다고 보았다. 西村茂樹, 「西語十二解」, 『明六雜誌』 36號, 231쪽.

쓰다는 문명개화를 신속히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택한 것 같다. 그는 종교
 로서 기독교를 유일, 최선으로 보지는 않았
 다. 후일 또 다른 글 「삼성론」(三聖論)¹⁵에서
 는 불교의 석가, 기독교의 예수, 유교의 공자
 를 삼성(三聖)으로 같이 평가하고 있는 데에
 서 그의 의도가 나타난다. 즉, 종교 그 자체
 로서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기독교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쓰다 마미치

한편, 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의 관념은 종교를 일본의 천황제와 관련지으려는 논리로 비약하고 있기도
 하다. 「정론」(政論)¹⁶에서 그는 세상의 흐름은 점차 인문이 개명(開明)하면서
 제정(祭政)이 분리되지만, 일본은 신대(神代)로부터 정교일도(政敎一途)로 이
 어져 왔기 때문에 천황의 제사 기능은 국가의 대례(大禮)로 가장 중요하
 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기독교의 도입과 종교적인 천황의 기능
 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고민보다는 개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한 것이기에, 개화를 위해 필요한 종교성을 일본의 천황제에서도 찾아
 내려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특히 일본의 개화와 천황권의 확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겠다. 「정론 2」(政論 二)에 바로 그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¹⁷

중전에는 천황이 수렴청정이나 하여 마치 여왕과 같았으나, 이를 바꿔 정원(正
 院)에서 만기(萬機)를 친재(親裁)하게 하니 … 시세가 그러하지 않을 수 없게 하
 는 것에 따른 것이다. [천황의 친정은] 단연코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한 최대의 것

15 『明六雜誌』 21號, 158~159쪽.

16 『明六雜誌』 9號, 102쪽.

17 『明六雜誌』 11號, 109쪽.

으로 나라의 모든 제도가 민심을 하나로 하여 구미 각국과 나란히 할 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개화를 위해 기독교를 활용은 하지만, 천황에게 정치적인 절대 권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인 것이다.

비판적 태도

가시와바라 다카아키(柏原孝章)와 사카타니 시로시(阪谷素)는 서양 유학의 경험도 없고 양학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이었던 인물들이다. 그래서인지 명육사 멤버로서는 상대적으로 기독교 또는 종교 일반에 대하여 다른 기준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시와바라는 니시 아마네의 교문론(敎門論)을 비판하는 「교문론 의문」(敎門論疑問)을 세 차례에 걸쳐 『명육잡지』에 게재했다.¹⁸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적 수준을 낮게 보는 우민관(愚民觀)과 종교의 기능성에 대한 회의(懷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믿음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근거한다.”라는 니시의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살펴서 그 믿어야 될 바를 안 연후에 비로소 의심이 없어지는 것인데, 스스로 살펴 알지 못하면서 믿을 수는 없고 더욱이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남을 믿게 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종교는 백성들이 각자 믿고 싶은 것,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교문론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냈다. 서양인은 이미 지식이 쌓여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해도 ‘목석충수’(木石蟲獸) 같은 것을 믿는 일이 없겠지만, 일본 백성들은 사교의 미혹에 빠질 수가 있

18 『明六雜誌』 29號, 196~197쪽; 『明六雜誌』 30號, 200~201쪽; 『明六雜誌』 31號, 206쪽.

다는 것이다. 종교는 모름지기 사(邪)를 근절하고 음(淫)을 배척하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근본인데, 정부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가시와바라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의 권(權)과 종교의 도(道)는 근본을 달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종교로 인해 해를 입지는 않는다.”라는 견해에 대하여도, 그는 종교에는 정교(正敎)와 사교(邪敎)가 있다고 반박한다. 정교는 정치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

는 기독교 십계명의 5계명 이하에서처럼 정치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도 있다. 그러나 백성들이 쉽게 빠지게 될 사교와 신권(神權)정치는 신교(神敎)가 아니고 우민(愚民)을 속이는 사술(邪術)이 될 수도 있다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결국 ‘인심’(人心)으로 돌아가고 있다. 즉, 로마는 종교로 인해서 번성했으나 종교로 인해 몰락했다. 사람이 종교를 세운 것은 세상을 구체하려는 것인데, 그 폐단은 종교 자체보다 인간에게 있다고 가시와바라는 보고 있다. 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바르게 되어야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자주(自主)의 권(權)을 얻을 수 있다. 일본에도 고래로 인간으로 하여금 ‘본연(本然)의 성(性)’을 찾게 하려는 ‘천연(天然)의 교(敎)’가 있어 왔으나 인간사가 복잡해짐에 따라 교문(敎門)이 다단해지고 인심이 일치되지 않아 종교의 폐단이 많이 일어났다. 천하에서 제일 훌륭한 종교를 택해 공교(公敎)로 하자는 주장, 각자 좋아하는 바에 따르게 하면 된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인심’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해도 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는 백성들을 깨우치게 한 뒤 그 수준(‘인심’)에 맞게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림 5〉 사카타니 시로시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유학자를 자처한 사카타니 시로시는 정치와 종교가 상통하는 주도 이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교의 의문 제일」(政教ノ疑 第一)¹⁹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만물에는 ‘주(主)’가 있는데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정에 주인이 있는 것과 같다. … 사람들이 평생 가장 중요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선’(善)이 바로 삶의 지향점이 되는 것으로서, 선(善)을 세우면 즉,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믿음을 깊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되는 데에는 정교(政敎)와 법교(法敎)가 있을 뿐이다. … ‘주’가 세워져 방향이 명확하게 되어도 그것을 깊게 믿지 않는다면 … 배가 영원히 표류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다. … 일가(一家)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일국(一國)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어지러워진다. 만인(萬人)은 만 가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공화(共和)해도 화(和)하지 않는다. … 이는 무엇 때문인가? ‘선’이 ‘주’가 되지 않고 ‘악’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천리(天理)의 공(公)에서 생기는 컨시언스(conscience, 양심)가 쇠하여 인욕(人慾)의 사(私)에서 생기는 패션(passion, 욕정)이 성행하는 것과 같다.

사카타니는 ‘정교’(政敎), 즉, 세속의 질서 기준과 ‘법교’(法敎) 즉, 종교적 신앙은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서 ‘선’(善)이라는 삶의 방향을 공통의 가치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主=국가의 기본이념)는 구체적으로는 세속적인 윤리로서 정교의 목표임과 동시에 종교 교육으로서 법교가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지다.

특이하게도 사카타니는 『명육잡지』의 마지막 호인 43호에 「존왕양이

19 『明六雜誌』 22號, 163쪽.

설」(尊王攘夷說)²⁰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의 명육사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주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가 의도한 것은 이전의 편협한 존왕양이를 넘어 “아침을 배격하고 상하공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다”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존왕양이였다. 당시 외압에 노출된 일본의 상황에서 서양 열강에 비굴한 태도를 취하거나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론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존왕양이로, 개인의 선(善)과 더불어 국가의 주(主)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이해와는 별개의 세속 이념을 내세운 것이다.

* * *

메이지정부가 성립된 직후 일각에서 추진하려던 신도국교화(神道國教化) 정책은 당시 일본이 처한 국제적 외압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부국강병과 문명개화의 움직임과 적절히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었다. 이를 가장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던 그룹이 서양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한 명육사의 멤버들이었다. 그들은 근대화에 앞선 서양 열강의 힘이 단순한 과학과 기술의 우위뿐 아니라 그 뿌리를 이루는 정신적 기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서양종교 즉,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명육사원들이 논란을 거듭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교일치(政教一致)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다만 효율적인 개화책의 하나로 기독교 선교사를 활용한 기독교의 전파를 제안한 쓰다 마치미와 같은 경우는 있지만 그도 일본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신앙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하였다. 물론 가시와바라 같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지식이 미치는 한에서 종교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그의 종교관은

20 『明六雜誌』 43號, 263~265쪽.

다른 멤버들과 달리 종교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그만의 현실적인 관심에 그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국민을 근대적 시민으로 교도하는 데 종교와 도덕을 어떻게 조화시켜 일본에 적용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다. 나아가 종교와 지식, 학문, 정치적 계몽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신앙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의했다. 니시 아마네는 지식의 심화와 확산을 통한 기독교 신앙의 고양이야말로 일본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기독교 신앙과 유가적(儒家的) 상제관(上帝觀)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덕성의 심화를 통해 일본에서의 기독교 전파를 기대했다. 한편 다른 차원에서 사카타니 시로시는 종교와 정치가 상통하는 주도 이념 즉, 선(善)을 백성들에게 목표로 제시하여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교분리(政教分離)라 하여도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신앙이 공동의 이익이나 습속의례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모두 받아들였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했다. 이들이 후일 천황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신앙으로서의 천황 숭배가 아닌 국민교화 차원에서의 협력이었다. 서양적, 보편적 규범이 일본의 문명개화에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이 처한 특수 상황과 조건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그들은 천황제를 일본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 아닐까? 서양을 모델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것이, 후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메이지헌법을 제안하면서 “서양 열강의 문화적 원천이 기독교라면 일본에서는 천황제로 바탕을 삼아야 한다”고 역설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명육사원들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그 자체로 깊이 있게 수용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본에 온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기독교

도들이 그들 나름대로 신앙과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일본의 지식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신앙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것은,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일본적 상황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